

美구금 한국인 귀국편 내일 애틀랜타로…대한항공 전세기 투입

전세기 미국시간 10일 출발 목표로 세부 절차 진행

대형기 이착륙 가능 공항으로…약 10억원 추정 비용은 LG엔솔 측 부담

한국인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간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9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취재진에 이렇게 밝히면서 구금된 국민 300여 명을 데려올 전세기는 현지시간 10일 출발을 목표로 세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루비오 장관과 면담하는 한편 미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등 우리 국민의 출입국에 관여할 수 있는 연방정부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들과 만나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고,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신설과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등 방안도 미국 측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기에는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구금된 일부 외국 국적자들도 함께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금된 국민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데려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구금된 우리 국민의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이 다양한데,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모두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시키고 미국 재방문 시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

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오는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로 움직이는 페리 여행을 한다.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편은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우선 조지

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km)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당초 귀국편은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대형기 이착륙에 제약이 있는 점이 확인돼 애틀랜타 공항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1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이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비용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봉 기자

하이트진로, No.1 프랑스 밀맥주 크로넌버그 1664 블랑 서울패션위크 애프터

‘Good Taste With a Twist’ 슬로건으로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브랜드 경험 제공

런던, 코펜하겐 등 글로벌 패션위크 스폰서 활동도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No.1 프랑스 밀맥주 ‘1664 블랑’이 지난 5일 성수동 EQL Grove에서 열린 2025년 서울패션위크 애프터 파티 협찬 브랜드로 참여해 참석자들에게 유쾌한 밤을 선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서울패션위크 홍보부스 운영에 이어 두 번째 협업으로 1664 블랑의 브랜드 슬로건인 ‘반전 있는 좋은 맛 (Good Taste With a Twist)’에 맞춰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된 공간에서 진행했다.

사전에 초청된 디자이너, 인플

루언서, 패션업계 관계자 등의 참석자들은 서울패션위크 참가 27개 브랜드의 의류를 관람하고 그 룹CHS의 라이브공연과 DJ자우, 다니엘 오, 카라라의 디제잉과 함께 1664 블랑을 즐겼다.

하이트진로 유테임 사무는 ‘서울패션위크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행사로 1664 블랑이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닿아 있다’며 ‘이번 행사는 런던패션위크, 코펜하겐 패션위크 스폰서십의 연장선상으로 앞으로도 이같은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스타그램 계정 @1664blancr 을 통해 애프터 파티 현장의 비하인드 컷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화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출시 사망보험금 지급도 '세대를 잇는 맞춤형 솔루션'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사망보험금, 신탁을 활용해 원하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지급 가능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도 활용 가능, 유가족의 생활안정 기능 한층 강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한화생명이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신탁은 한화생명 산하 상속연구소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고객은 자녀 학자금·상속세 재원·장기 생활비 등 세대별 라이프 플랜에 맞춘 체계적 자금 설계를 실현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여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한 보험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다. ▲3천만 원 이상 일반사망을 보장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수익자 ▲보험계약 대충이 없을 것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하여 목적이 맞게 종신보험을 유언하고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먼저, 일시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손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조부모가 있다면 신탁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손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취업 전까지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매년 1천만 원씩 10년 동안 나누어 줄 수 있다. 분할 지급되는 동안 사망보험금 잔액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되어 최종 지급액에 이자도 더해진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신탁에 맡겨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5억으로 상속세 재원 일시금 1억원과 생활비에 도움이 되도록 약 17년간 매월 200만 원씩 분할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을 신탁관린인으로 지정하여, 친권자인 전 배우자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신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송원 기자

JW생활건강,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 유사품 주의

뉴질랜드 본사 확인 결과,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일부 가품 판명

정품은 공식수입원 인증 홀로그램 스티커 부착 여부, 판매자 정보 등으로 판별 가능

JW생활건강은 뉴질랜드산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의 유사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의 국내 공식 수입·총판사는 JW생활건강이 유일하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저가 유사품은 뉴질랜드 본사 엔데버헬스컨슈머리미티드(Endeavour Health Consumer Limited) 확인 결과 가품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소비자 후기에서도 효과가 없거나 냄새 제거 기능이 미흡하다는 불만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JW생활건강은 ‘그랜즈레미디’ 35g 제품을 판매해왔으며, 올해 6월부터는 50g 제품도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사칭한 가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JW생활건강은 정품 식별을 위해 뉴질랜드 본사와 협력,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도 정품과 가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그랜즈레미디’는 오리지널(무향), 페퍼민트, 오렌지 3종으로 구성된 분말형 신발 냄새 제거제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간 사용하면 최대 6개월까지 탈취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발에 많이 나는 환경에서도 강력한 탈취 효과를 발휘해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JW생활건강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품은 성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하다”며 “정품은 JW생활건강을 통해서 국내에 공식 판매되고 있으며, 반드시 구매 전 공식수입원 인증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에서 ‘할머니 마법가루’, ‘신발 파우더’ 등으로도 불리는 그랜즈레미디는 탁월한 신발 냄새 제거 효과로 입소문을 타며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현진 기자

두산건설,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 전달

두산건설 We’ve 골프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마련…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예정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청각장애 아동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두산건설 We’ve 골프단이 지난 7월 청각장애 아동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마련을 위해 진행된 스크린 골프 경기에 재능기부로 참여하며 조성됐다. 해당 경기는 골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은우의 아이리브골프TV’에서 진행됐다.

사랑의달팽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기회를 얻기 힘든 청

각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인공와우 수술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단체로, 이번 기부금 역시 아동들의 수술과 재활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은 9월 9일 귀의 날을 기념해 8일 사랑의달팽이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두산건설 We’ve 골프단 김민솔 선수와 두산건설 오세욱 상무, 사랑의달팽이 조영운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민솔 선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골프단을 대표해 참석하여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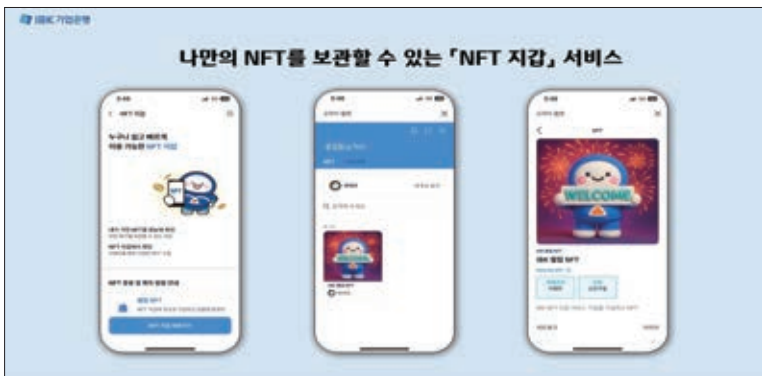
금을 직접 전달하게 돼 영광이다. 오늘의 기부가 아이들이 세상과 더 자유롭게 소통하며, 자신만의 꿈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갖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달팽이 조영운 사무총장은 “두산건설의 따뜻한 지원이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공와우 수술을 받지 못하는 청각장애 아동에게 기부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2023년 골프단 창단 이후 골프단 운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약 1억 5,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 산불 피해 복구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했다. 두산건설은 “We’ve 골프단이 단순한 선수단 운영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경영 기자

IBK기업은행, 디지털 자산 체험 확대 ‘NFT지갑 서비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산에 발맞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지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NFT지갑 서비스’는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인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지갑 서비스다. 기업 맞춤형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지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서비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

상 개인고객으로 IBK카드앱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실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임포스테블 티켓 공모자 중 1,750명에게 NFT 형태의 티켓을 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NFT지갑을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는 가입 기념 NFT를 발행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NFT지갑 서비스 시범 운영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진입의 첫 단계”라며 “앞으로 고객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송원 기자